

Weekly Ulsan Economic Trends

주간울산경제

2023.07.24. ~ 2023.07.30.

2023년 7월 31일(월) 경제노동과

◎ 이슈 포커스

- IMF 7월 경제전망 발표: 세계 3.0%, 한국 1.4% 성장 전망

◎ 울산 산업 동향

- (자동차) 현대모비스 분기 최대 매출, 유럽·인도 전동화 생산거점 검토
- (석유화학)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제고
-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분기 '흑자전환',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 (비철금속)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로 비철금속 가격 하락

◎ 울산 경제 동향

- (부동산) '23년 7월 3주 울산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모두 감소
- (기업경기) '23년 7월 울산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BSI 모두 상승
- (소비자동향) '23년 7월 울산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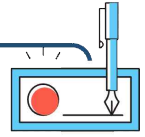
◎ 국내외 주요 이슈

- (국내) KITA 수소생산시설 연평균 86% 증가 전망, 정부지원 필요
- (해외) 중국 빠져나가는 글로벌 자금, 미-중 투자전쟁이라는 평가



이슈 포커스

Issue Focus



IMF 7월 경제전망 발표: 세계 3.0%, 한국 1.4% 성장 전망

■ 국제통화기금(IMF) 4월 세계경제전망에 대한 수정 전망 발표

- 2023년 세계 경제는 3.0% 성장할 것으로 전망, 이는 4월 전망치 대비 0.2% 상향된 수치
 - 미국 부채한도 협상 타결, 실리콘밸리 은행 및 크레딧스위스 사태 진정 등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완화
 - 특히 코로나 종식으로 관광 등 서비스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했다고 평가
 - 국가별로 미국, 영국, 일본은 기대 이상의 1분기 소비·투자실적을 기록해 상향조정, 이탈리아, 스페인은 관광업 수요 회복을 반영하여 상향조정 되었음
 - 반면 독일은 제조업 부진과 저조한 1분기 실적의 영향으로 하향조정
- 우리나라 2023년 성장률 전망은 1.4%로 4월 대비 0.1%p 하향
 - 이는 우리 정부, 한국은행,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내외 주요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전망
- IMF는 세계경제에 대해 단기적으로 회복하고 있으나 여전히 위험요인이 많은 상황 (Near-Term Resilience, Persistent Challenges)이라고 진단
 - 물가상승률은 하락세이나 근원물가상승률이 여전히 높아 긴축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권고
 - 금융시장 위험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노동시장 유연화, 탄소중립 실현 등을 강조

〈출처〉 기획재정부('23.7.25.), 국제통화기금, 7월 세계경제전망 발표, '23년 세계 3.0%, 한국 1.4% 성장 전망.



(자동차) 현대모비스 분기 최대 매출, 유럽·인도 전동화 생산거점 검토

■ 매출 15.6조원으로 분기 최대 기록, 유럽과 인도에 전동화 생산거점 검토

- 현대모비스 올해 2분기 매출 15조 6849억원 기록, 전년동기대비 27.4% 증가
 -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663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4.6% 증가, 2020년 4분기 (7023억원) 이후 가장 높음
 - 매출 비중은 모듈조립 부문이 가장 많은 비중 차지, 2분기 매출은 6조 485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7% 증가
 - 매출 증가 폭은 전동화 부문이 가장 크게 나타남, 매출은 3조 7436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78.2% 급증(다만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것으로 추정)
 - 영업이익의 85%는 A/S 부문이며, 해운운임하락과 항공운송축소 요인도 영업이익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의견
- 현대모비스는 글로벌 전동화 거점 지역 확대를 위한 투자 진행
 - 현재 9개(국내 6, 해외 3)의 글로벌 전동화 생산 거점 운영 중, 총 6개 신규 거점(국내 1, 북미 4, 인도네시아 1) 구축 진행
 - 유럽, 인도 등에 전동화 생산 거점 추가 검토 중

〈출처〉 Bizwatch('23.7.27.), 현대모비스, 자동차 호황에 '분기 최대 매출'...영업이익↑.

(석유화학)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 제고

■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 리오프닝 효과 미미 등으로 부진을 보이던 석유화학업계가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

- 지난해부터 시황 침체를 겪은 석화업계

- 석유화학의 쌀 ‘에틸렌’ 스프레드는 1~2월 평균 190달러로 저조했다가 3월 283달러로 반등 기대감을 높였으나 이후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음(에틸렌 스프레드는 통상 3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봄)
- 중국 리오프닝 효과도 기대와 달리 상반기 미미한 수준, 공급과잉과 수요 위축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석화업계 공장 가동률 감소
- 전기요금 상승, 국제유가 변동 등 또 다른 요소들도 존재, 국제유가 상승 시 나프타 가격도 상승하므로 원가 부담이 커지는데, 수요 부진으로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없어 수익성 악화

● 하반기 업황 반등 속도는 더디지만 원가 하락, 수요 회복 등 영향으로 실적 개선 흐름 가시화

- 중국 수요와 관련된 긍정적 시그널이 지속 시현되어 본격적 수요 회복 기대
- 정부가 연말까지 나프타 수입 전량과 나프타 제조용 원유 1억 배럴에 대한 무관세 연장 적용

〈출처〉 스트레이트뉴스(‘23.7.27.), 하반기 불황타파 나선 석유화학 ‘기대 반 긴장 반’.

(조선) HD한국조선해양 2분기 ‘흑자전환’, 하반기 수익성 개선 기대

■ 올해 2분기 HD한국조선해양 흑자전환 성공, 하반기 선가 인상으로 수익성 개선 효과 기대

- 선박 건조물량 및 선박용엔진 납품 수량 증가로 2분기 흑자전환 성공
 -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712억원으로 흑자전환 달성
 - 매출은 30.2% 증가한 5조 3526억원으로 집계
- 하반기부터는 선가 인상에 따른 수익성 개선효과가 실적에 반영돼 영업이익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 한편, HD한국조선해양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흑자전환으로 밝혔으나, 영업손실이 있었다고 정정공시 한 바 있음
 - 1분기 실적 발표 당시 영업이익 585억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 달성했다고

밝혔으나, HD현대중공업이 2005년 수주한 해양플랜트 공사의 하자배상 청구에 대해 런던 중재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일회성 비용 707억원이 반영되면서 19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고 정정공시

〈출처〉 NEWS1('23.7.27.), HD한국조선해양 2분기 '흑자전환'... "선박 건조물량 증가 효과".

(비철금속) 중국 경기 부진에 따른 수요둔화 우려로 비철금속 가격 하락

■ 국제유가 상승세에 유연탄, 철광석 등 광물가격은 상승한 반면, 수요둔화 우려로 비철금속의 가격은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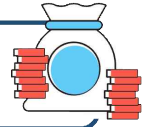
- 7월 3주차 주요 광물가격동향, 유연탄 가격 t당 138.44달러로 전주 대비 5.0% 상승
 - 우라늄과 철광석도 전주 대비 각각 0.5%, 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국제유가가 4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계절성 수요 확대로 상승 압력이 발생한 것
- 같은 기간 중국 경기 부진으로 구리, 니켈, 아연 등 비철금속 가격 하락
 - 구리는 t당 8438달러, 아연은 2362달러로 각각 0.2%, 1.1% 하락
 - 니켈도 t당 2만 795달러로 전주 대비 6.1% 하락, 이는 메이저 발레(Vale)사의 2분기 니켈생산량이 영국 소재 정제련소 유지보수 문제로 전기대비 10% 감소하면서 생산차질이 발생한 것에 기인
 - 광해광업공단 관계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인상 속도둔화 전망에 따른 달러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경기부진으로 수요둔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비철금속의 하방 압력이 발생했다는 의견
 - 한편, 철광석(중국수입가) 가격은 t당 115.47달러로 전주 대비 4.5% 상승, 이는 중국 경기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미달러 약세 및 인도의 조강생산 확대로 상승 압력이 발생했기 때문

〈출처〉 NEWSIS('23.7.24.), 국제유가 상승세에...유연탄·철광석 뛰고 비철금속 줄고.



울산 경제 동향

Ulsan Economic Trends



(부동산) '23년 7월 3주 울산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지수 모두 감소

■ '23년 7월 3주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전주 대비 보합

- 울산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전월과 같으며 전국 평균은 0.02% 상승
 - 구군별로 중구 0.00 → 0.00, 남구 0.01 → 0.01, 동구 -0.09 → -0.06, 북구 -0.01 → 0.00, 울주 -0.01 → -0.01
 -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2%) 대비 상승폭 유지, 수도권(0.07% → 0.06%)은 상승폭 축소, 서울(0.07% → 0.07%)은 상승폭 유지, 지방(-0.03% → -0.02%)은 하락폭 축소
 - ※ 5대광역시(-0.04% → -0.03%), 8개도(-0.02% → -0.02%), 세종(0.30% → 0.25%)
- 시도별로 세종(0.25%), 서울(0.07%), 경기(0.06%), 인천(0.05%) 등은 상승, 울산(0.00%)은 보합, 제주(-0.07%), 전남(-0.06%), 부산(-0.06%) 등은 하락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75→74개) 및 보합 지역(12→10개)은 감소, 하락 지역(89→92개)은 증가

■ '23년 7월 3주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전주 대비 0.07% 감소

-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0.07%로 전국(0.01%)보다 감소폭이 큼
 - 울산 아파트 전세가격지수 변동률은 지난주(-0.09%)와 비슷한 수준
 - 구군별로 중구 -0.07 → -0.05, 남구 -0.07 → -0.05, 동구 -0.36 → -0.24, 북구 -0.06 → -0.02, 울주 -0.01 → -0.02
- 시도별로 세종(0.14%), 서울(0.08%), 경기(0.07%)는 상승, 인천(0.00%)은 보합, 대구(-0.12%), 부산(-0.09%), 울산(-0.07%) 등은 하락
 - 공표지역 176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63→67개)은 유지, 보합 지역(13→12개) 및 하락 지역(100→97개)은 감소

〈출처〉 한국부동산원('23.7.24.), 주택가격동향조사: 2023년 7월 3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기업경기) '23년 7월 울산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BSI 모두 상승

■ '23년 7월 제조업 및 비제조업 업황BSI는 전월대비 각각 8p, 1p 상승

- (제조업) 7월 업황BSI는 72로 전월(64)대비 8p 상승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65로 전월(60) 대비 5p 상승
 - 업황BSI는 자동차, 금속제품 업종이 개선
 -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인건비 상승(17.0%), 불확실한 경제상황 (16.7%), 자금부족(13.5%), 순으로 응답
- (비제조업) 6월 업황BSI는 63으로 전월(64)대비 1p 하락하였으며, 다음달 업황전망BSI는 67로 전월(57) 대비 10p 상승
 - 업황BSI는 건설업, 도소매업 등이 개선
 - 경영애로사항은 인력난·인건비 상승(22.2%), 내수부진(18.8%), 자금부족 (11.6%) 순으로 응답

〈출처〉 한국은행 울산본부('23.7.27.), 2023년 7월 울산지역 기업경기조사 결과.

(소비자동향) '23년 7월 울산 소비자심리지수 전월대비 상승

■ '23년 7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2.5로 전월(98.6)대비 3.9p 상승

- 완만한 소비회복 흐름, 수출부진 완화 기대감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상승하여 '22년 5월(102.8) 이후 처음으로 100을 상회
 - ※ 전국 소비자심리지수는 103.2(전월대비 +2.5p)로 지난달에 이어 두 달째 100을 상회
- 6개 구성지표(소비자동향지수) 중 5개 지수가 전월대비 상승
 - 향후경기전망 +9p, 현재경기판단 +8p, 현재생활형편 +3p, 생활형편전망 +3p, 소비지출전망 +2p, 가계수입전망 0

〈출처〉 한국은행 울산본부('23.7.26.), 2023년 7월 울산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국내외 주요 이슈

Korea & Global Issues



(국 내) KITA) 수소생산시설 연평균 86% 증가 전망, 정부지원 필요

■ 한국무역협회(KITA) 2030년까지 수소 생산시설 ‘수전해 설비’ 규모 연평균 86%씩 증가하면서 글로벌 수소 생산량 대폭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

- 2021년 세계 수소 생산량 약 9400만t 중 81%가 화석연료로 만든 ‘그레이 수소’이지만,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그린수소 생산량이 크게 확대된다고 예측
 - 세계 수소 생산 시장 규모가 2020년 1296억달러에서 연평균 9.2% 성장해 2025년 약 201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이와 관련하여 수소 생산시설이 매년 급격히 늘어난다고 전망
- 수소는 장기간 저장할 수 있고 유해한 부산물 없이 에너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탈탄소가 본격화된 현재 각국 정부가 ‘수소 공급망’ 구축에 치열한 경쟁 중
 - (독일) 그린 수소 생산 비용 절감을 위해 전력 부과금 면제, 그린 수소 수입 전략 수립
 - (미국) 자국 내 수소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인프라법과 IRA 보조금을 활용해 기술 개발과 생산 단가 절감 추진
 - (일본) 2027년부터 15년간 화석연료와의 발전 단가 차액 지원 예정
 - (중국) 2020년 세계 1위 수소 생산 시장 보유, 2025년 수소시장 규모는 427억달러에 달할 전망
 - (호주) 수소 생산 시장은 2020년 약 44억달러에서 2025년 71억달러로 성장 예측
 - (한국) 2019년부터 수소 생산 기지 구축 사업 진행, 지난해부터 수전해 기반 생산기지과 탄소 포집형 수소 생산기지 구축 사업 시작, 수소 산업 특성상 즉각적인 사업성과가 힘들기 때문에 적극적인 정부 지원책이 필요

〈출처〉 연합뉴스 (’23.7.26.), 무협 “수소 생산시설 연평균 86% 증가 전망...정부지원 필요”.

(해 외) 중국 빠져나가는 글로벌 자금, 미-중 투자전쟁이라는 평가

■ 최근 글로벌 투자 자금의 중국 이탈 현상 심화로 미중간 무역·기술 분야에 이어 투자 분야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평가

● 미국·유럽을 비롯한 글로벌 투자자들이 중국시장 대신 미중 갈등과 중국의 성장 둔화로 부터 반사이익을 얻는 신흥국으로 향하는 양상

- 제로 코로나 해제 이후 더딘 중국의 경기 회복세, 중국의 대규모 부양책 부재에 따른 실망감, 미중간 긴장 고조 등의 요인이 투자 이동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
- 지난 2분기 중국 투자에 주력하는 뮤추얼펀드에서 6억7천400만 달러가 순유출된 반면 중국을 제외한 신흥국 뮤추얼펀드에는 10억 달러가 순유입 되었음
- 중국의 경기둔화로 직접적인 이득을 보는 국가로 제조업 공급망에서 중국을 대체하는 멕시코, 인도, 베트남 등을 꼽았으며, 중국보다 나은 성장 전망 덕분에 매력이 올라간 브라질 등을 꼽음
- 중국은 신흥국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주요국이며 한국, 대만의 테크기업을 비롯해 성장 전망이 밝은 남미 시장 등이 대체 투자처로 주목됨

● 미국·캐나다와 일부 유럽 투자자들은 정치적 압력 때문에 중국을 빠져나가고 있으며 미국이 무역전쟁과 기술전쟁에 이어 투자전쟁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는 평가

- 투자자문업체 케임브리지 어소시에이츠는 최근 12개월간 중국 투자 상품에 대한 문의가 거의 없었다고 언급
- 로이터는 서방의 기관투자자들로서는 중국 투자에 따른 평판 위험도 커지고 있으며, 중국 투자 시 내부 감사부서에 정당성을 설득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평가
- 캐나다 의회는 자국 내 연기금들과 중국 간의 관계를 점검, 미국 행정부는 대중국 투자 제한을 위한 행정명령 마련 작업 진행 중

〈출처〉 한국경제(’23.7.27.), 중국 빠져나가는 글로벌 자금...“미, 무역·기술 이어 투자전쟁”.